

21세기 특허전쟁은 비즈니스이다



박진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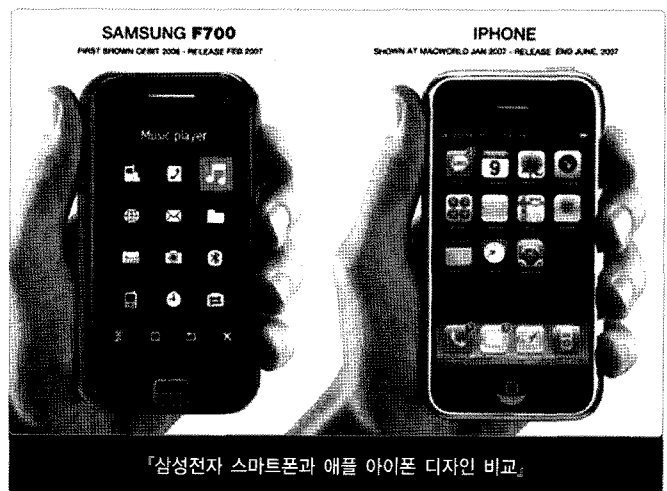
21세기 특허 법률 사무소 기업기술 가치 평가사(현)
 삼성전자 반도체 IP팀 수석 연구원
 특허법 및 창의력 개발 강사
 KAIST EMDEC 신제품 개발 강사
 창의력 이야기 외 다수 저술인

애플의 특허소송은 한국 특허 중흥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

IT 업계의 양대 거인인 삼성전자와 애플이 쌍방 특허전쟁을 선포했다. 지난 4월 15일 갤럭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모방했다고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삼성전자가 역시 맞소송으로 반격하면서 “삼성은 침해하지 않았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며 먼저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미국에 맞소송을 하겠다고 하였다.

애플이 제기한 둥근 모양의 디자인 특허나 스크린에 표시되는 아이콘 관련 기술들은 이미 공지되어 있는 기술로 특허 무효성이 존재하거나 디자인 변경 등을 통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둥근 형태의 디자인은 삼성전자(스마트폰)가 1년 먼저 채용한 흔적이 보임으로 ‘애플이 삼성전자의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간다.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들은 데이터 전송 시 전력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효율을 높이는 기술은 HSPA(고속패킷전송방식)의 통신표준 특허이며, 데이터 전송 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기술은 WCDMA 통신표준 특허이다. 그리고 휴대폰을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케 하는 기술들은 이미 범용화되고 있는 기술이다. 국제표준 특허들은 특허침해 증거도 없이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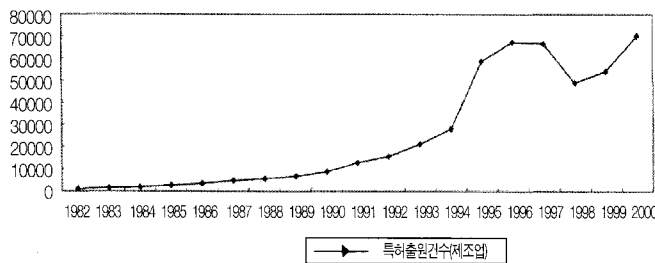
특허 기술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아닌, 특허를 조금만 알고 있는 삼척동자라도 특허전쟁의 향방을 금새 알 수 있는 사안이지만 특허 소송의 다양한 변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양사가 서로 필요한 비즈니스 고객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 보다는 합의로 끝날 공산이 크지 않나 생각해 본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양사의 특허소송 결말보다는 우리나라의 특허제도 및 시스템이 삼성전자가 외국회사들에게 특허소송을 당하고부터 훨씬 성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애플이 제기한 특허소송 이후 우리나라 특허 중흥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 21세기 특허전쟁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TI의 반도체 특허 공격은 우리나라 특허발전 촉진제였다

1987년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TI(Texas Instruments)사가 삼성전자 반도체를 특허 공격하면서 한국의 특허제도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정설이 되었다. 아래 그래프를 살펴보면 1982년에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87년 전후로 약간의 증가속도를 보인다. 이후, 1995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87년 TI 반도체의 특허 공격이 있은 후, 25년 만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IT업계를 대표하는 애플에게 특허제소를 당했다는 것은 애플이 강한 특허가 아니라, 오히려 삼성전자를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다. 25년 전 TI가 특허공격(반도체)하여 우리나라 특허가 한 단계 발전하였듯이, 애플의 특허 공격 후 소송과 비즈니스가 전략화되는 특허전쟁이 비즈니스의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내국인이 국내에 특허 출원한 특허출원건의 변화」



자료: 특허정보원 데이터베이스

특허 경영의 최상위 단계는 비즈니스이다

한국 특허전쟁 1세대로 자란 필자는 특허제소를 명령한 애플의 부르스 시벨 특허담당 부사장의 의도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애플

보다 미국 특허 등록 기준으로 10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건드린 이유는 비즈니스적인 견제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애플은 삼성이 강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공격할 것으로 생각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 삼성이 비즈니스적인 타격을 원할 것으로 알고, 방어 겸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는 국제표준 특허를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불리 특허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시장이란 관점에서 보면 선제공격이 여러모로 비즈니스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허전략이나 특허제도의 발전 단계를 연구해 보면 가장 기초적인 1단계가 기업을 시작할 때 벤처인증을 받거나 인허가 또는 관공서 프로젝트 공모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2단계는 사업분야 기술을 개발, 방어적인 측면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단계다. 개발 기술을 보호하고 사업하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를 넘어 시장분석 기술분석 등 특허 전문가가 필요한 단계며, 특허 전담 부서가 필요한 성장 중인 기업군에서 나타나는 단계다.

3단계는 특허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는 최상위 단계로, 이 단계는 제품 기술을 개발하여 제조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거나, 연구개발만 하여 특허를 만들거나, 특허를 매입 제품생산이나 연구 없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단계다. 특허전담 부서가 특허소송까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상위 단계로 제품생산 판매 및 특허 소송이 전략적으로 맞물리는 최상위 단계다.

애플은 기술개발과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단말기 후발업체 특성상 다른 회사의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는 독자적인 기술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제표준 특허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는 언젠가 특허소송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태임을 이미 알 수 있고,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묘안으로 특허를 선제 공격하여 비즈니스적인 타격을 봄으로써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숨어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분명 정보통신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 공격을 통해 시장을 보호하고 큰 파이의 비즈니스를 원하겠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주 고객임으로 삼성전자는 애플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길 원할 것이다. 애플이 공급받는 반도체를 다른 회사에서 공급받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특허로만 대응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보다 포괄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애플의 특허담당 부사장이 현재 삼성을 특허공격한다는 것은 매우 바보스러운 행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애플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삼성전자에 특허소송을 함으로써 향후 비즈니스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전략하에 선제공격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21세기는 지식재산 비즈니스시대이다

21세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10년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20세기 정신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느낌을 준다. 노령화 및 청년 실업 문제로 인한 노동 인구의 감소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어떻게든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살아 나갈 수 있다. 농사를 짓기 위한 삽질은 의미가 있다.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를 삽질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 상품은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하고, 그러한 지식재산은 전략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21세기는 60%에서 80% 사이의 인구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이러한 사회실정에 맞는 직업이 창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국민을 20세기 삽질의 정신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연구중심 및 고부가가치 업종 창출이 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한국과 EU 및 미국 등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시장의 보호장벽이 무너져 농업 분야 등은 심

한 타격을 받게 되지만,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업 군에서는 군이 현지에 공장이나 연구소를 짓지 않고 국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하더라도 동일한 시장으로 무관세 효과를 얻음으로써, 향후 국내에 연구소 및 제조공장이 많아져 고용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연구중심이 되고 고부가가치 사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이 특허경영이다. 특허경영은 기업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국가의 특허 시스템과 사회적인 인식이 함께 성장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그러한 사회적 변화는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파급, 교육되어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의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분쟁 소송은 우리나라 특허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본다.

IT 업계 최대의 라이벌 회사가 벌이는 이번 특허전쟁은 후발업체 및 국내 타 기업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FTA 효력 발생 후 선진국과 동일 시장이 되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 특허전쟁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련 시스템이 고도화될 것이다.

21세기는 지식재산 비즈니스 시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에서 언급한 1, 2 단계의 기본적인 성장을 통해 3단계 형태로 빨리 전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세계가 동일 시장이 되는 보호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시장개방의 파고를 역으로 방어하고 극복하며 독점권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식재산 제도이기 때문에 지식재산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2011. 6 |